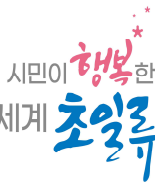
 <b>인천광역시</b>		<b>보 도 자 료</b>		 <b>세계초일류도시 인천</b>
		배포일자	2023년 8월 3일(목) 총 3매	
담당 부서	보건환경 연구원	담당자	• 남촌농수산물검사소장 • 담당자	주광식 ☎440-8514 정승혜 ☎440-5564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시, ‘유통 길목 검사’로 부적합 수산물 유통 전면 차단

- 3일, 인천 최초 수산물 현장검사소 연안부두에 개소 -
- 올해 수산물 방사능 검사 600건 계획 ... 불안 소비심리 잡는다 -

수도권 수산물 공급 허브 도시 인천이 유통 길목 검사로 부적합 수산물의 유통을 전면 차단한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시민이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3일 연안부두 인천국제수산물타운에 수산물 현장검사소를 설치, 개소했다고 밝혔다.

인천시의 수산물 현장검사소 설치·운영은 식약처의 협조 요청에 의한 것으로, 시는 지난 2021년 12월 16일 ‘지자체 실무책임자 협의회’에서 식약처의 수산물 안전관리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효율적인 현장검사소 설치 계획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인천종합어시장과 활어도매시장이 있는 연안부두는 전국 활어의 35%가 유통되고 있는 수도권의 수산물 유통 길목으로 도매단계 검사가 가능한 장소다. 도매단계 검사는 소매단계 검사와 달리 생산자 파악

이 용이해 부적합 수산물의 유통을 차단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에 보건환경연구원은 유통 수산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 초 발 빠르게 인력을 재배치하고 운영 예산을 확보해 이날 수산물 현장 검사소를 개소했다.

현재 국내 유통 수산물 중에는 양식 수산물이 62%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온 상승으로 양식 수산물의 항생제 사용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장검사소에서는 수산물의 동물용 의약품(항생제) 신속 검사를 통해 부적합 제품을 가려내고 즉시 유통을 차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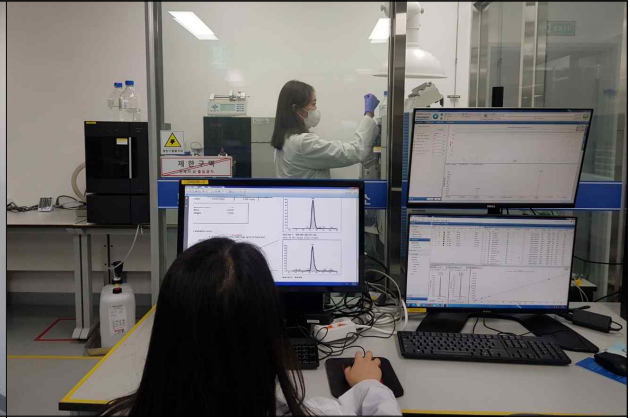
또한, 올해부터 막연한 불안감으로 수산물 소비심리가 급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산물 방사능 등 유해 물질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수산물 안전 문제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수산물 현장검사소는 자체 수거를 확대함을 물론, 시, 군·구의 협조를 받아 12월까지 수산물 방사능 검사 600건(2022년 285건 대비 210% 상향조정 목표치)을 계획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수산물 검사 대상 지역을 인천지역 어시장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권문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인천시는 시민의 입장에서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를 이해하고 해소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수도권 수산물 공급 허브 도시로서 선제적 관리를 통해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방사능 분석



동물용의약품 분석

※ 개소식 관련 사진은 14시 이후 인천시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게시될 예정입니다